

鳳山 李鍾麟의 短篇小說

朱 鍾 演*

1. 序

普庵 李鍾麟은 凤凰山人 또는 凤山이란 筆名으로 1910年代 初期 天道教會月報에 多數의 短篇小說을 發表하였으나 韓國의 近代文學史에서는 물론 學界에서 조차 그에 關한 言及은 거의 全無한 狀態였다. 筆者가 調查한 바로는 李鍾麟은 1883年에 忠南 瑞山郡 貞美面 升山里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漢學을 修學하였으며 天道教에 入教하여 1910年 8月에 創刊된 “天道教會月報”의 主要 멤버로서 활약하였다. 同誌를 通하여 그는 小說・漢詩・論說 等 多樣한 文筆活動을 하였으며 特히 同 “天道教會月報”가 倭警의 비위를 거슬려 슷한 警告와 部分 爬制, 押收, 發賣禁止 或은 發行停止가 되풀이되는 악순환 속에서 한 때는 그 自身이 直接 發行人이 되는 등(1918~1922) 同誌에 깊이 關與하여 排日思想의 鼓吹, 大衆啓蒙의 앞장에 서기도 했다. 後日 그는 天道教會의 最高 指導者인 教領을 解放 前과 그 直後에 歷任하였으며 5.10 선거 때에는 그의 鄉里인 瑞山 甲區에서 出馬 當選되어 制憲國會議員이 되기도 했다. 6.25때 人民軍에 拉致되어 슷한 辛苦끝에 풀려났으나 그 餘毒으로 그해에 他界하였다 한다.

李鍾麟은 “天道教會月報”創刊號를 위치하여 1910年에 4篇, 1912年에 1篇都合 5篇의 短篇小說을 發表하여 韓國近代短篇小說의 形成 過程에서 草創期의 役割을 한 作家로 重要한 史的意義를 지닌다. 이같이 多數의 作品發表에도 그가 度外視된 것은 源泉의 으로는 從來 文學史 記述에서 1910年代는 全般的으로 거의 無視되어온 傾向에서이며 게다가 그의 創作活動 舞臺가 天道教라는 特定 宗敎機關誌였기 때문인 것 같다. “天道教會月報”는 後日 “開闢”이나 “東光”도 그러하였듯이 特定宗教나 集團만을 爲한 순수機關誌라기보다

* 國民大 教授 (國文學專攻)

民衆全體를 意識한 啓蒙的 綜合雜誌였다. 同誌의 構成 内容은 教門訂議 敎理 學術 小說 詞藻 雜俎 彙報 等으로 大體로 나뉘지고 學術部에는 歷史 地理 物理 化學 農事하는 法 果樹 栽培法 森林의 効果 等에 關한 論文이 號마다 連載된 點으로 미루어 보아 同月報가 “單純히 敎理研究나 敎徒들에게 敎況等의 傳達만에 그치지 않고 民衆啓蒙에도 關心이 깊었음”¹⁾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天道敎會月報”에 收錄되어 있는 李鍾麟의 短篇小說은 그 内容이나 主旨에 있어서는 多分히 宗教的 色影를 濃厚히 띠고 있다 하더라도 包括的인 大衆指向의 雜誌라는 叙上한 同誌의 性格으로 보아 1910年代의 小說研究를 爲한 貴重한 資料임에는 疑心의 餘地가 없다. 1910年代 中盤 내지 後半期는 小星과 春闌이 “青春”을 通하여 創作活動을 하였기에 이 部分은 大體로 把握될 수 있었으나 1910年代 初半은 在日 東京留學生들이 主動이 된 “大韓興學報”에 몇篇의 短篇들이 收錄되어 있음과 國內 刊行物로는 “少年”程度에서 滿足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天道敎會月報”에서 單一 作家로는 적지 않은 數量인 5篇을 發見할 수 있음은 文學史的으로 상당한 意義가 있다. 다시 말하면 玄相允과 李光洙의 바로 앞에 李鍾麟이 놓인다는 매우 重要한 位置 確定이 可能할 수 있다는 前提다.

鳳山 李鍾麟은 1913年 8月에 普書館에서 “文章體法”이란 文章論 책을 刊行하며 1910年代 初期의 修辭論 研究에도 크게 寄與한 바 있다. 總 204面上下 全1冊으로 된 同書는 菊池三九郎의 “文章眞訣”, 唐宋八大家, 左傳, 尚書, 禮記, 陳騤文話集等 修辭論을 根據로 “於古來文章諸體에 選其最法者”²⁾ 編爲是書(自書)한 것²⁾이라 밝힌 것으로 미루어 보아 開化期의 文章論 및 修辭論研究에도 重要한 資料를 提供하고 있다. 傳來의 文章理論과 日本을 거쳐 이땅에 流入된 西歐式 新 修辭理論과의 미묘한 共存現象이 이론과 開化期 文章論의 特殊性이라 할 수 있을진대 當代의 이같은 修辭學의 理論을 總括整理할 수 있는 資質을 保有하고 있었다는 點에서 李鍾麟은 理論과 實際를 경비한 當時의 一級文士 임에는 의심할 바 없다. 綜合的으로 보아 1910年代 初期에 보인 그의 役割과 業績은 刮目할 만한 것이다며 韓國近代文學史上 그

1) 金根洙: 韓國雜誌概觀 및 號別目次集, 서울, 韓國學研究所, 1973, p. 115

2) 李在銑: 開化期의 修辭論, 人文研究論集 第2輯, 서울, 西江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69, pp. 5~6.

의 位置는 응당 밝혀져야 마땅할 것이다.

鳳山 李鍾麟이 發表한 短篇小說의 年代와 作品의 梗概는 다음과 같다.

1. 모란봉	天道教會月報	1號	1910年 8月 刊行
2. 海棠花下夢天鵝	"	2號	1910, 9 "
3. 可憐紅	"	4號	1910, 11 "
4. 感秋風別情友(未完)	"	5號	1910. 12 "
5. 一聲天鵝	"	2卷8號	1912. 5 "

〈모란봉〉

평양 대동문 안 북편에 훌 시어머니만 모시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젊은 내외가 있었다. 어질고 착한 며느리는 비록 젖어지게 가난하나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정화수를 길어서 정성스레 하늘을 섬기고 시어머니를 공경한 덕에 어느 추운 날 새벽 정화수를 길을러 대동강에 내려 갔다가 물동이 가득 黃金을 엎어 세 식구가 함께 그것을 물속에서 건져 낸다.

〈海棠花下夢天鵝〉

도인봉이 둘러 있고 태평강이 흐르는 극낙촌에 후줄그레한 옷을 입은 한 사내가 나타나 개울가에서 목욕재계하고 지성껏 기도를 드린후에 잠깐 잠이 든다. 꿈에 上帝께서 나타나 성심껏 天道教를 믿고 닦으면 장차 밝은 날이 있으리라는 啓示를 받고 깨어나서 곧 근처의 목동 에게 물어 教人の 집을 찾아 내려간다.

〈可憐紅〉

늦 가을 어느 날 남의 교임에 자기를 배반하고 6.7年前에 떠나갔던 女人이 다시 찾아와 사죄하고 용서를 빌었으나 천일옹은 끝내 노여움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요소이 기집들은 열이면은 아홉은 외양으로는 계서방과 리연호고 속으로는 계서방의 흉계로 남의 손이 등을 치는 악습이 ह도 만한니……”라는 꾸짖음에 女人은 눈물을 씻으면서 처량히 떠나 간다.

〈感秋風別情友〉

靈臺山에 사는 虛靈子가 본시 上帝의 품을 대신하여 이 땅에 만가지의 지혜권능 자본 복녹등을 가지고 내려와 그것들을 실천케 하다가 가을 바람이 선들 불 때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이 小說은 未完으로 끝 났다)

〈一聲天鶴〉

서홍 羅帳山 아래 오두막집에 사는 주인 남자가 서울에서 열린 天道教 大集會에 갔다 돌아오는 날 밤이다. 그의 아내와 딸들이 아버지가 비단허리띠 주머니 냉기 분 바늘 색실 등을 선물로 가져 오기를 기다렸으나 막상 그는 이보다 더 중요하고도 값진 천인장——天道教人의 최고의 영예를 선물로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함께 기뻐한다.

2. 短篇小說의 特徵

1) 文藝樣式의 表示

지금까지 調查된 바로는 開化以後 短篇小說이란 장르 名稱을 使用한 것은 1906年 7月 3日字 “萬歲報”에掲載된 李人稙의 標題없는 “小說短篇”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는 별반 理論的인 提示도 없이 말의 純粹한 意味 그대로 짧은 小說 Kurzepik이란 뜻 程度에서 短篇이란 用語가 把握되고 使用된 것 같다. 그後 1908年 1月에 創刊된 “獎學月報”(또는 奬學報) 第1號의 末尾에 奬學月報 發行規則이 明示되어 있는바 거기 第2條 目次를 밝히는 部門에 小說(純國文短篇)이라 指定되어 있고 同35條에 “小說은 1行 20字 30行 以上 50行 以內로 흄”이라 함으로써 正式으로 短篇小說로 呼稱되지는 않았지만 그 分量이 200字 原稿紙로 3장 내지 5장 程度임을 밝혔다. “獎學報” 第1號에는 盧麟奎의 〈農家子〉가, 第2號에는 入選小說인 沈相直의 〈晚悟〉, 陸定洙의 〈血의影〉, 李揆昌의 〈英雄魂〉, 閔天植의 〈蠅笑密蜂〉等이掲載되어 있어 이들 모두가 극히 짧은 規定대로의 短篇小說이긴 하나 그대로 小說이라고만 밝혀져 있고 아직 短篇이란 名稱은 同月報의 發行規則 속에만

敷衍하여 記錄되어 있을 뿐이다.

1909年 3月에 刊行된 “畿湖興學會月報” 第8號에는 震庵散人作 〈壯元禮〉라는 開化期 短篇小說이 收錄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도 그대로 “小說”이라 記載되어 있다.

鳳凰山人 李鍾麟이 지은 前記 5篇의 小說 모두에는 한결같이 “短篇小說”이라 明記되어 있어 이제까지 밝혀진 開化以來 記錄物로는 短篇小說이란 名稱을 完全하게 使用한 最初의 例가 아닌가 한다.

小說 短篇이니 小說(純國文短篇)이니 그 어느것이나 完全한 呼稱은 아니다. 1910年에 發表된 春園의 短篇들——“大韓興學報”的 〈無情〉의 경우나 〈少年〉, 〈어린犧牲〉 또는 〈獻身者〉의 경우에서나 이 모두가 短篇小說이 아닌 그대로의 “小說”로 明示되어 있음을 想起할 때 短篇小說이란 術語의 使用은 상당히 先驅的인 役割로 그것은 文學史的 意義를 지녀 마땅하다. 李鍾麟이 把握하고 있는 短篇小說의 意味는 以後 그의 作品의 分析을 通하여 밝혀질 것이긴 하나 그의 5篇의 短篇 모두가 200字 原稿紙 11~13장의 길이를 나타냄으로 이것은 當代의 短篇의 一般的 定義와 어떤 函数關係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凤凰山의 短篇小說이 大體로 보아 그 길이에 있어서 “獎學月報”的 그것보다 거의 배 以上이 길어졌다 함은 興味 있는 現象으로 看做된다.

2) 叙述된 時間의 短縮

李鍾麟의 短篇小說의 두드러진 特徵은 叙述된 時間이 한결같이 짧다는 것 이 우선 指摘되어야 한다.

〈모란봉〉은 연눌아기가 어느날 새벽 대동강에 정화수를 끄러 갔다. 일어난 지극히 짧은 時間 안의 이야기이며

〈海棠花下夢天翁〉 역시 한 사나이가 개울가에서 잠시 낮잠을 자다 꿈 속에서 啓示를 받고 깨어난 사이의 짧은 叙述된 時間을 갖는다.

〈可憐紅〉은 어느 가을 날, 6.7年前에 背信하고 떠나갔던 女人이 돌아와 참회의 눈물을 흘렸으나 사나이로부터 골내 容恕를 받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떠나가는 짧은 時間에 일어난 한 場面을 다룬다.

〈感秋風別情友〉는 5篇中 有一한 未完小說인 바 이 역시 上帝의 使者가 가을 바람이 선들 불제 서둘러 故鄉으로 떠날 차비를 하는 場面만의 提示로

상당히 짧은 叙述된 時間을 나타낸다.

〈一聲天鶴〉 또한 서울集會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날 밤에 가족들이 한데 모여 서울에서 가져온 賦物을 끌러보며 驚歎해 마지 않는 극히 짧은 時間의 經過를 叙述한다.

이렇듯 5篇의 作品 모두가 지극히 짧은 時間의 經過를 다루고 있음은 전적으로 새로운 形式의 一端으로 指摘될 수 있겠다. 이같은 現象은 “獎學報” 2號에 收錄되어 있는 陸定洙의 〈血의 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特性으로 近代的 意味의 短篇小說이 徐徐히 定着되어 가는 徵候를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다. 叙述된 時間의 短縮은 오늘날 現代短篇小說의 重要한 特徵중의 하나로 看做된다.

3) 叙述者의 役割變移

叙述者の 無分別한 干涉과 同情, 主權者的 機能에서 退行的 叙述態度로의 變轉——換言하면 主觀的 叙述에서 客觀的 叙述로의 變移現象을 現代短篇小說의 特徵으로 指摘할 수 있겠다.³⁾ 從來 李朝小說에서의 叙述者란 小說 全體의 支配者로 君臨하여 이른바 全知的 叙述者로 不斷한 干涉을 行使하며 無分別한 同情을 일삼는 主觀的 態度로 임했다. 그러나 近代小說에 있어서의 叙述者란 全知的 叙述者(Omniscient narrator)의 位置나 立場에서 조차 冷嚴한 客觀性을 不斷히 維持함이 前者와의 差異라 일컬을 수 있을 真대 李鍾麟의 小說 속에서 叙上한 相異한 두 叙述樣相을 發見할 수 있음은 近代小說로의 變移現象을 다른 側面에서 確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의 몇 篇의 短篇은 縱橫無盡하는 叙述者の 모습을 간간 보임으로써 前代小說의 叙述形態를 아직 脫皮하지 못하였음이 눈에 띈다.

“간밤에 부던 바람 일진 츄풍이 아닌가. 풀웃 냉웃 편시 춘광을 자랑하던 저 화초다 간곳 읍고 우슈우 쪽쪽 날니누니 만성 황염이로다. 야 신자동아 저 탁엽을 흄부루 엄부루 쓰러바리지 마리라. 사흘이 궁호면 근본을 성각하고 입식가 써려지면 우리로 도라오느니라. 하— 김의관집이 위인일이오 우리가 그렁저렁 뚝칠년만에 만나겠구려 편안하오.”

〈可憐紅〉

3) 李在銑: 韓國短篇小說研究, 서울, 一潮閣, 1975, pp. 67~70

小說의 開頭에서부터 叙述者는 自然 景概를 描寫하고 스스로 感歎하며 또 그것을 通하여 다음에 일어날 事件을 象示한다. 이 같은 叙述者の 客觀性의喪失은 〈海棠花下夢天鵝〉에서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천국산이 쪽 써러져 도인봉이 둘러있고 티평강이 휘도라서 극난촌이 여기로 다 문노라 쳐 목동아 쳐소가가 어티미뇨 나도 세상시비를 다 던지치고 저곳에 뒷 가라 쪼반책죽 누에쳐 동의호복 천황씨 지민여아 지왕씨 지민여아 아마도 우리는 인황시 겸……. 꺽 단공을 빙여 셔셔 넉울시 바라보다 죽양방초에 털퍼며 안지면서 길이
란식하는 말이……”

〈海棠花下夢天鵝〉

이 또한 小說의 冒頭에 提示한 自然描寫로 叙述者の 不斷한 干涉과 無分別한 同情을 엿보인다. 그러나 일단 自然景概나 情況이 說明 내지 提示된 後로는 叙述者は 態度를 突變하여 冷靜한 觀察者로 變貌하거나 小說의 뒷면에 숨어 버림으로써 近代小說的 叙述態度를 取한다. 가령 〈모란봉〉에서 劇的인 場面인 小說의 末尾에 동이 가득히 들어 있는 黃金을 머느리 시어머니 아들 等 3者가 합심하여 끌어 올리는 대목에서 叙述者は 애써 冷靜을 찾고 아무런 感歎의 註釋도 없이 客觀的으로 現象을 叙述한다.

“쪽 위에 있는 서서방이 뛰여드러오며 어기여차 훈소리에 동의가 쪽 써러져 나오니가 특히 쓰힌것이 편편 금이로다. 삼인이 간신히 끌어나 오니 모란봉 걸린 달은 다 넘어가고 터성산 양상봉에 아침 날이 둥두렷이 올나오며 평양 일성이 와글와글.”

〈可憐紅〉에서도 첫 提示部分만 除外하고는 大體로 叙述者は 晴정한 話者로서 이론바 叙述者 退行의 3人稱小說의 形態를 取한다. 〈可憐紅〉의 마지막 場面 描寫는 客觀的 叙述의 상당한 境地를 보인다.

“벽장에 걸인 시중이 서로 훈검을 쌍 치닛가 김스집 벌더 이러셔서 솟쳐 나오는 우통을 얹지로 섞키고 간신히 흔든 말이 령감 헛히 갖치 널으신 도량은 진이가튼 인성을 용납할 읍시수 일간 다시 와 보입겠습니다. 장옷을 잔뜩 우구려 쓰고 파리호 병아리 바람마진 거름으로 정동 어구를.”

그의 마지막 短篇인 1912年作 〈一聲天鵝〉 또한 小說初頭에 펼쳐지는 常套的 自然描寫에서는 叙述者の 干涉이 눈에 띠고 곧 이어 자취를 감춰 버림으로써 前代의 叙述類型에서 아직 完全히 逸脱치는 못했으나 大體로 客觀的

立場을 지키려는 叙述者의 態度變移現象을 그의 短篇속에서 읽을 수 있다.

4) 場面的 提示

李鍾麟의 短篇小說에서 抽出될 수 있는 共通된 特徵은 前代의 小說에서 흔히 보였듯이 常套의이며 公式的인 發端이 省略되고 불竽 現實의 한 場面에서부터 小說이始作된다는 點이다. 前述한 바 5篇의 作品 모두가 現實的인 한 場面에서 이야기가 提示되며 說話의 發端이나 要約的 說明조차 여기서는 拒否되고 止揚된다. 〈모란봉〉 〈海棠花下夢天鵝〉 〈可憐紅〉 〈感秋風別情友〉 그리고 〈一聲天鵝〉 等 이들 作品이 한결같이 짧은 時間 속에서 展開되는 生의 한 斷面性을 提示하며 그것은 또 報告的 說明的 提示보다 場面的 提示를 為主로 함으로써 近代短篇小說의 特性의 片鱗을 보인다. 비록 勸善懲惡의 宗教의 主旨이긴 하나 〈모란봉〉에서 이론 세벽 시어머니와 며들아기와의 對話를 通할 赤貧한 家庭環境의 提示나 善良한 性品의 浮刻, 그리고 因果應報의 終局의 歸結이 모두가 要約的 說明이 아닌 縮約된 場面 提示에서 表出된다. 〈一聲天鵝〉 또한 家長이 歸家와豫期치 않았던 賦物이 안겨다주는 기쁨이 지극히 짧은 時間의 經過 속에 凝縮되어 劇的인 場面으로 表出된다.

〈可憐紅〉은 만남과 헤어짐이란 普遍的인 主題가 가을의 季節的 効果와 더불어 더욱 劇化된다. 결코 씻을 수 없는 깊은 마음의 傷處 때문에 容恕조차 받지 못하고 헤어지는 場面의 提示는 生의 悲劇的 把握이란 또 다른 近代의 要素를 感知케 한다.

이렇듯 李鍾麟의 短篇小說 거개가 짧은 叙述된 時間 속에서 일어난 事件의 經過를 다룬 것인만큼 說明을 通한 要約的 提示보다 凝縮된 場面 그대로의 露出을 피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자연 地文보다 對話가 主調를 이루며 事件이 展開된다.

5) 1回的 完結

近代의 短篇小說의 形成 乃至 土着化에 開化期의 新聞小說 中 回章體小說이 어느 程度 寄與했을 可能성이 전혀 排除될 수는 없다. 1906年 “帝國新聞”에는 主로 說話的 敎訓的 主旨를 作品화한 短篇들이 連載形式으로 發表되었던 바 〈正己反人〉은 3回에 걸쳐서, 〈報應昭照〉는 2回에, 〈犬馬忠義〉는 2回

〈殺身成仁〉은 8회, 〈智能保家〉는 1회에 각각 連載되어⁴⁾ 短篇小說의 育成에新聞이 寄與한 初期的 面貌를 確認할 수 있다. 비록 짧은 小說일지라도 連載란 단 1회에서 完結 짓지 못하는 아쉬움을 內包하고 있을진대 이에 부수되는 必然的인 慾求를 점차 雜誌에서 充足시키고 있었음이 아닌가 한다.

1904年 大韓日報에 連載된 〈灌頂醍醐錄〉은 每回章마다 따로 標題를 붙여各章節에 따라 敘述內容이 다른 이른바 回章體小說의 形式을 取하고 있는바이 또한 近代的 短篇小說의 源源으로 追跡될 수 있겠으나 上記한 連載短篇과 마찬가지로 每章이 全載라는 1回의 完結을 期待할 수는 없었다.

近代的 短篇小說은 短篇〈無情〉이나 〈어린犧牲〉처럼 2.3회에 걸쳐 連載되는例外가 全혀 없는 바 아니지만 大體로 1回의 完結을一般的인 特性으로 삼고 있다. 凤山 李鍾麟은 〈感秋風別情友〉만을 未完으로 하고 나머지 4篇은各己 단 1회에서 完結짓는 形式을 取한다. 짧은 時間의 經過 속에서 進行된事件의 敘述은 生의 斷面性을 提示할 뿐더러 그 自體가 하나의 完結을 主張한다. 逆順的 時間의 進行이나 再構의 技巧도 없이 順進的 짧은 時間의 敘述 속에서 그 나름대로 完成된 狀況과 場面은 단 1회 속에 凝縮되고 縮約되어 指示된다. 그것은 行動 惑은 事件의 發端과 中軸 그리고 結末로 이어지는敘事文學의 構成的 要素가 짧은 敘述된 時間 그 속에 全部 갖춰져 表出됨을 意味한다.⁵⁾ 長篇小說의 縮小도 아니요 長篇 속에서任意로 떼어낸 한場面은 더욱이 아니다. 설사 그같은 要素를 含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獨立된 個體로 充分히 存在한다. 1回의 完結은 李鍾麟의 短篇小說의 特徵인 同時に 그것은 現代短篇小說의 普遍의인 特性과도 一致한다.

6) 單一性의 追求

單一한 構成, 單一한 主題, 單一한 効果의 追求는 近代短篇小說의一般的인 特徵으로 指摘된다.⁶⁾ 長篇小說이 生의 總體的 把握을 指向하는 것이라면短篇小說은 單一性(Einheit)의 追求를 本質的 特性으로하는 敘事文學의 한樣式을 意味한다.⁷⁾

4) 宋敏鎬: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研究, 서울, 一志社, 1975, pp. 30~31

5) Brooks & Warren; Understanding Fiction, N.Y., Appleton, 1959, p. 78

6) 崔載瑞: 文學과 知性, 서울, 人文社, 1938, p. 172

7) W. Kayser; Das Sprachliche Kunstwerk, München, Francke, 1968, p. 366

李鍾麟의 短篇小說의 가장 顯著한 特徵은 그 單一性의 追求에 있다. 〈모란봉〉은 勸善懲惡의 宗教的 主題가, 〈海棠花下夢天鵝〉은 啓示를 通한 宗教的 歸依를, 〈可憐紅〉은 因果應報의 悲劇的 歸結을, 〈一聲天鵝〉 또한 굳은 信仰心으로 因한 報恩의 기쁨을 各己 主題로 提示하며 發端 中軸 結末이란 圖式的 敘事文學의 進行과 構造的으로 結合한다. 국히 짧은 敘述된 時間의 順行의 經過 속에서 그것은 擬縮되고 縮約되어 素朴한 單一性을 追求한다. 說明의 要約보다 劇的 場面의 終局의 提示는 主題의 浮刻와 더불어 單一性의 效果를 더욱 高調시킨다. 全般的으로 登場人物의 性格의 造成(Characterization)을 바랄 수는 없으나 斷片의으로 提示된 이들 人物들은 單純化 되어 事件의 마무리를 無理 없이 遂行한다. 人物과 事件 그리고 場面의 지나친 單純化現象은 敘述된 짧은 時間과 짧은 分量으로 現代의 意味의 풍드를 彷彿케하나 풍드 또한 現代의 短篇의 變形임에는 疑心의 餘地가 없다.

構成의 單一化에서 비롯되는 生의 斷面的 提示와 이에 隨伴되는 主題의 單一性은 李鍾麟이 이미 把握하고 있는 短篇小說의 構造的 特性이며 이같은 特徵을 그의 5篇의 小說을 通하여 試圖한 先驅的 業績은 높이 評價받아 마땅하다. 長篇小說樣式이 風靡하던 當代의 與件 속에서 近代的 短篇形式의 受容과 이의 適用은 설사 하나의 試圖에 머물렀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草創期의 役割로 文學史的 意義를 지닌다. 短篇小說에서의 單一性의 追求는 李鍾麟의 短篇 속에서 이미 確立되어 後代에 이어졌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單一한 構成, 單一한 主題, 單一한 效果의 追求는 近代短篇小說의 普遍的 特性인 同時に 그의 小說에 一貫된 構造的 特徵이다.

7) 前代的 要素

李鍾麟의 短篇에서 發見되는 前代小說의 要素는 허다하게 指摘될 수 있겠으나 다음의 몇 가지가 두드러지게 露出된다.

우선 勸善懲惡의 主題가 前代의 踏襲 내지 持續으로 看做될 수 있겠다. 5篇의 作品 모두가 特定한 宗教機關誌인 “天道教會月報”에 실린 理由로 설사 同雜誌가 1910年代初의 大衆誌의 구실을 했다 손 치더라도 李鍾麟自身이 天道教會의 重鎮이요 同誌를 通하여 大衆啓蒙과 더불어 教勢擴張을 염두에 두고 있은限 그의 小說이 宗教的主旨와 無關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사실

〈可憐紅〉을 除外한 4篇의 作品 모두가 天道教的 教義와 直接的인 聯關係를 맺고 있어 어느 面에서는 宗教文學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理由에서 勸善懲惡의 前代小說의 主題는 오히려 당연한 歸趨일 것이다. 이 같은 要素는 教示文學(Lehredichtung 或은 Didaktik)의 特性과 軌를 같이 하며⁸⁾ 主題論의 으로 考察할 때 그것은 全的으로 前代文學의 特性과 符合된다. 〈可憐紅〉 또한 宗教的 主旨와는 無關하다손 치더라도 背信者가 脅極的으로 받아야 할 脅懲이란 點에서 별로 다른 主題라 볼 수 없다.

다음으로 標題의豫示性이 指摘될 수 있겠다. 가령 〈海棠花下夢天鵝〉이나 〈可憐紅〉, 〈感秋風別情友〉 또는 〈一聲天鵝〉等의 漢詩的 標題는 이미 叙述될 小說의 內容을 含蓄하거나 짙은豫示性을 表出한다. 一般的으로 小說의 標題란 全 作品에서 取扱될 事件이나 主題의 導入的豫示의 機龍을 어느 程度含蓄함이 事實이나 標題의 짙은 直接的豫示性은 近代小說에 내려오면서 大體로 弱化된다. 〈모란봉〉은 唯一한例外로 餘他 作品에서 보인豫示性을 止揚함으로써 標題의近代的接近을 試圖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李鍾麟의 短篇에서 對話의 表記 또한 前代의 要素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더동문 안 복면학 셋지문 다 쌔그려진 집에서 아가 며나라가 일어나거라 시간이 다 되았다 물길너 가야지”
〈모란봉〉

“슈남아 울지마라 아바지가 서울서 네비단 허리쇠 쥬먼이 당기 다 손가지고 오신단다. 복났야 널어나거라. 아바지가 너의 뿐 바늘 식실 만해 사가지고 오신단다. 이리한총 어루는 판에 사립문이 짹걱 짹걱 흐더니 성남아 문 열어라 어 치워라 슈남 어마니 이 보통이 밖으시오.....”
〈一聲天鵝〉

윗 글에서 보듯 對話는 地文과 전혀 區分됨이 없이 그대로 混淆되어 叙述된다. 이 같은 樣相은 全的으로 前代小說의 表記 그대로이며 이런 例는 5篇의 短篇속에 매우 드물게 退化되어 散見된다. 그外 大部分의 對話는 開化期小說特有의 表記形式인 直接話法의 表示——地文과 區別되어 對話文 앞에 話者の 이름이 明記되어 흡사 戲曲의 臺詞를 彷彿케 하는——樣式을 採擇하고 있다.

그밖에 人物의 性格 浮刻이 없다던가, 〈可憐紅〉을 除外한 모든 作品이

8) H. Seidler; Die Dichtung, Stuttgart, Kröner, 1965, p. 440

Happy Ending을 피한 點, 〈海棠花下夢天鵝〉에서처럼 꿈의 啓示의 活用, 文體等 許多한 部分들이 前代的 要素로 指摘될 수 있다.

3. 結

鳳山 李鍾麟은 1913年 2月 25日 普書館 發行으로 “文章體法”을 出刊하여 開化期文章論의 理論을 展開하였다. 그의 理論的 根據로 菊池三九郎의 “文章眞訣”・唐宋八大家・左傳・尚書・禮記・陳騤文話集 等을 引用書目으로 밝혀 〈於古來文章諸體에 選其最法者玆야 編爲是書〉한 것이라 하나 文章總則24法 모두가 在來式 漢文 修辭法의 踏襲인데다가 體制之別의 118篇의 文章 또한 모두 中國 歷代文章大家의 諸作을 謬吐로 懸한 것에 不過하다고 李在銑教授는 “開化期의 修辭研究”에서 밝히고 있다.

“參考文獻 書目에 明示해 주듯이 또한 〈六而不傳이면 古人之心事를 何能法於今日이며 今日之心事를 何能法於後人이리오〉(自序)라고 한 保守的 態度는 宋代의 修辭論으로서의 陳騤의 修辭論인 「六則」等의 所說을 그대로 固守하고 있는 것이다”⁹⁾. 라 하고 그런대로 이 “文章體法”을 開化期 文章論의 重要한 資料로 다루는 理由로는 開化期의 性格 自體가 革新的인 改造로 一貫 되었다가 보다 保守的 要件과의 葛藤과 同時的인 並行이 不可避하였다는 解明때문이라 하여 李鍾麟의 修辭論을 開化期 以前 中國 修辭論의 模倣과 踏襲에서 연유된 前近代의in 것으로 特徵지웠다. 이것은 매우 示唆的인 指摘으로 李鍾麟自身의 文學論乃至 小說論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此際에 그의 短篇 小說의 發生의 根據를 追求하는 데 상당한 含蓄的 意味를 던져 준다. 即 李人稙을 위시로하여 白岳春史, 夢夢, 玄相允, 李光洙 等으로 이어지는 外來文學의 影響에 依한 短篇作家와는 對應的 位置에 凤山 李鍾麟이 놓일수 있다는 可能性의 提示다. 換言하면 李鍾麟의 短篇小說은 自生的인 것으로 그 發生의 根據를 西歐的인 源源에서가 아니라 傳來의인 漢文小說이나 李朝小說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解釋이다. 近代 短篇小說은 전적으로 西歐의 影響에 依해 이룩된 것만은 아니라는 본보기로 李鍾麟의 短篇이 提示하고 있

9) 李在銑: 前揭書 p. 6

다. 文學史的으로 李人稙 白岳春史 夢夢 安國善 다음으로 凤山이 놓인다는 年代記의 意味 以上으로 그의 小說이 自生의 일 수 있다는 可能性의 確認은 短篇小說의 形成過程考察에 또 다른 意義를 던져 준다. 前項에서 言及한 安國善도 이 面에서 李鍾麟과 軌를 같이한다. 1910年 4月刊 “畿湖興學會月報” 第8號에 掲載된 震庵散人の 〈壯元禮〉도 이와 같은 部類에 屬할 수 있겠으나 이 點은 此後의 研究課題로 남겨 둔다.

여하튼 凤山 李鍾麟은 天道教會 機關誌인 “天道教月報”를 媒體로 1910年에 4篇 1912年에 1篇等 諸合 5篇의 近代短篇小說을 發表하여 韓國近代短篇形成에 寄與한 功은 當代의 누구 보다도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開化期의 短篇作家로 現代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短篇을 通해 이룩한 그의 功績은 多大한바 가령 短篇小說이란 名稱의 確立, 近代短篇의 特徵으로 看做되는 叙述된 時間의 短篇, 叙述者의 報告내지 說明的 提示가 아닌 劇的 場面의 提示, 叙述者의 無分別한 介入 또는 干涉에서 客觀的 叙述로의 役割變移, 單一한 構成, 單一한 効果, 單一한 主題를 內包한 單一性의 追求, 常套의이며 公式的인 說話的 提示를 止揚하고 現實의 한 場面서부터의 發端, 1回의 完結 等이 그의 作品에서 抽出되는 近代短篇의 要素로 指摘될 수 있겠다.

그의 短篇은 이같이 許多한 近代的 要素 놓지 않게 前代의 特性 또한 적지 않게 包含하고 있음은 開化期小說이 지니고 있는 一般的인 特徵이며 不可避한 時代的 狀況의 正直한 反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